



저는 경기도 부천에 소재한 소명여고에서 학생들에게 종교를 가르치고 있는 박진희 에밀리아나 수녀입니다. 어린 시절 저의 가족들은 할머니의 영향으로 불교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으니 성당에 다니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 하신 것이 계기가 되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성당에 관해 잘 모르시지만 좋은 인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빈첸시오회에 가입하여 빈민가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대학시절에 빈첸시오 성인과의 만남이 사랑의 씨앗 수녀회로 초대받기 위한 길목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이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아이들을 만날 때 가장 행복했기에 부모님의 결혼 독촉에도 수도성소를 고민했었고, 성소주일 행사로 주일학교 학생들과 신학교에 방문했을 때 사랑의 씨앗 수녀님을 알게 되어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수도회의 가족 같은 이미지가 너무 좋아 2000 년에 입회하여, 충주성모학교, 도척양로원, 봉선동 성당을 거쳐 지금은 종교교사로서 소명여고에서 여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소명여고의 신자학생 비율은 전체학생의 10%로 공부를 핑계 삼아 성당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자 학생들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신자학생들을 파악한 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격려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모임을 만들어 갔고, 이 학생들의 도움으로 학교 내의 종교행사가 활기를 띠면서 점차 가톨릭신앙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아져 예비 신자 교리반이 늘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미사의 분위기를 활기차게 하기 위해 밴드팀을 결성하였고, 세월호 참사처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많은 학생들이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 3 학생들에게도 본원 방문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도원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학교사도직을 통해 마더씨튼이 왜 여성들을 위한 학교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시작했는지를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의 부족함이 방해가 될 때도 있지만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며 Sister of Charity!(사랑의수녀들!) 이라는 부르심에 맞갖은 준비를 하기 위해 오늘도 제 자신을 재촉해 봅니다.





My name is Sister Park, Jin Hee (baptismal name: Emiliana). I teach religion to the students at So-myong Girls' High School. When I was a child, Buddhism was the religion of my whole family. My grandma was influential in religion. However, one day, my mother told me that it might be good to go to church so that I could get to know many people. I followed her advice, and I came to know Catholicism. When I recall that time, I thought that my mom's impression of the Catholic Church was quite favorable. I was baptized as a college student, and I joined the Vincent de Paul Society to help poor children. As time passed, I realized that my encountering of St. Vincent de Paul at that time might have been an invitation to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from God.

After that, I taught little children at Sunday School along with my work. I spent my happiest times there. As a Sunday School teacher, I was so happy. I couldn't stop thinking of becoming a religious despite my parents urging me to marry. On a Vocation Day, I visited a seminary with the Sunday School children, and I met our Sisters there. And I fell in love with the Sisters and entered in 2000. I have worked at St. Mary School for the Blind, Do-Cheuk Nursing Home, Bongson-dong parish, and now I am working at So-myong Girls' High School.

Only 10% of the students at So-myong girls' School are Catholic, and most of them don't go to Church. To revive our identity as a catholic school, I thought that ensuring that the students are faithful to their faith is a priority. For this, I kept meeting the students and started a prayer meeting so that they can be encouraged and helped. More religious activities grew and so many students came to take interest in Catholicism that I had to make more Catechism classes. In addition to that, a music band was established for Mass. Whenever something happens requiring prayers such as the "Ferry Disaster," students gather together and pray during lunch time. We provided the chance for the senior high school students, to visit our Provincial House.



I

My ministry as a teacher enables me to understand, little by little, why Mother Seto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ducating women. Sometimes I feel that I am not good enough as a teacher, however, trusting in God's mercy I urge myself to be ready to respond to the call to be a good teacher as a Sister of Charity.

